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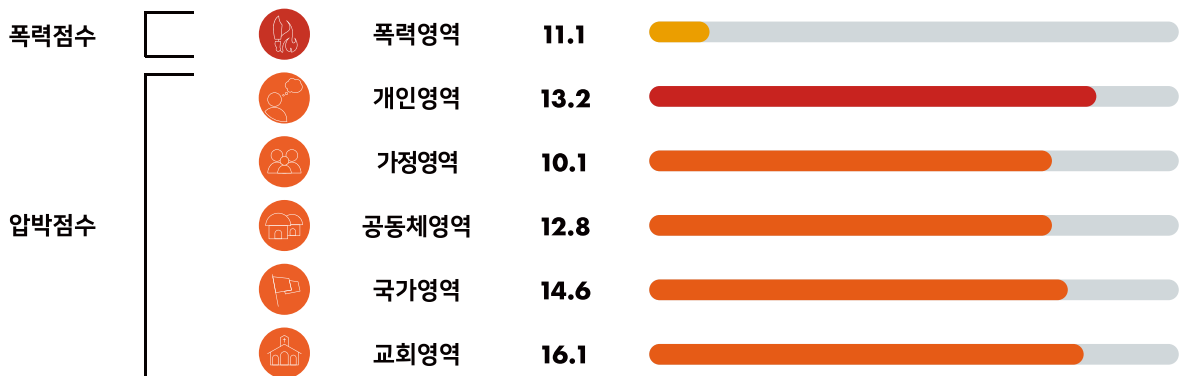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 중국 (CHINA)

기독교 박해지수  
**15** 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중국 공산당(CCP)은 종교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당 및 산하 청년 조직에 소속된 2억 8,100만 명의 중국인이 광범위한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교회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리, 관습, 도덕을 중국 문화에 부합시키도록 강요함으로써 교회를 당의 통제 하에 두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승인 교회 단체는 삼자애국운동(TSPM,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 개신교)과 애국가톨릭협회(CPA, Patriotic Catholic Association)이다. 이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로 불리지만, 수백 명의 신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승인 교회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비정부기구(NGO), 등록 의무, 2018년 제정된 종교 관련 규정(및 이후 몇 년간 확장된 규정,

특히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 장소 규정)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 점점 더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심각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급습과 폐쇄, 지도자 체포, 기독교 자료 압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슬람이나 티베트 불교에서 개종한 신자가 공동체나 가족에게 발각될 경우, 대개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

## 중국 (CHINA)

### 국가 정보

지도자 : 시진핑 주석

인구 : 1,425,179,000 명

기독교인 수 : 96,700,000명 (OD 추정치)

주요종교 : 불가지론

정부형태 : 공산당 주도 국가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6,700,000	6.8
불가지론자	459,977,847	32.3
기타 종교	438,948,262	30.8
불교	229,755,067	16.1

출처<sup>1</sup>

권력을 유지하고 모든 위협(실질적이든 인지적인 것이든)으로부터 통치체제를 보호하려는 궁극적 목표 아래, 중국 공산당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마오쩌둥 사상(Maoism)식 수사와 이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은 2017년 중국 공산당 헌법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여러 대학이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학부를 신설했으며, 중국 공산당 당원들의 이해도를 시험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유치

원생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이 사상을 주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안적 견해는 허용되지 않으며, 불 충성한 당원들은 숙청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대학 총장 직위를 당 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의 통치를 일원화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은 무신론 국가이다. '과학적 무신론의 원리'와 같은 무신론을 옹호하는 서적이 대학과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 교재로 배포되었다. 국민의 약 40%는 유교사상에 동의 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당이 '진정한 중국적 사상'으로 칭송하는 유일한 철학으로서 공산주의와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자애국운동(TSPM-개신교)의 시작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 가정교회는 삼자애국운동보다 수적으로 더 많지만, 연결성과 조직력이 약하다. 이들 가정교회의 절대다수는 목회 리더십이 매우 부족하며 이는 교회들이 소규모로 분산된 이후 지도자 수요

<sup>1</sup> 기타 종교로는 중국 민간 신앙(Chinese folk), 신흥 종교(New religionist), 시크교(Sikh), 심령주의(Spiritist), 도교(Taoist), 유교(Confucianist), 자이나교(Jain), 신토(Shintoist),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가 포함된다. Data source: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가 급증했으나 청년 사역이나 특수 사역 부문을 세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오순절성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많은 삼자애국운동 소속 교회 장소들도 정부의 압력에 의해 폐쇄되거나 대형 교회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압박에 더해,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된 규정(특히 제27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에서 두드러짐)은 공산당이 기독교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교회들이 호텔, 상가, 사무실 건물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 규모로 집회를 열었지만,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들은 10~2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되어, 다양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주로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가진다.

가톨릭 신자는 중국 기독교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허베이성과 중국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애국가톨릭협회 이외에도,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따르는 독립 가톨릭 교회들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활발하거나 외국 손님을 초청한 대형 교회들이 주로 감시와 폐쇄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독립 교회이든 국가 승인 교회이든 모든 교회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가 폐쇄될 경우,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되거나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어가게 된다.

현재는 종교 모임을 위한 온라인 활동, 종교 활동 장소, 지도자 선출까지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경 앱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금지되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점점 더 경제범죄, 금융사기, 혹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포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공식적 동맹국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비간섭 원칙과 국가 주권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 과정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 COVID-19 팬데믹의 여파와 맞물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PRC Leadership Watch, 2022년 12월 6일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소수 민족 배경을 가진 무슬림 또는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박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종교 자유 침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신장, 티베트, 서부 중국(쓰촨성, 윈난성)이 주요 박해 지역으로 지목된다. 또한 칭하이성과 닝샤에서도 무슬림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상황이 비슷하다. 쓰촨성 서부에는 티베트계 인구가 다수 거주하며, 구이저우성과 윈난성에도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윈난성에는 후이족(Hui) 무슬림 소수집단도 거주하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은 허난성,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허베이성에는 가톨릭 신자 수가 많아 이들 지역도 추가적인 주요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전역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성(省)에서 관련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외국인 기독교인 공동체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현지 중국 교회와의 접촉에 있어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서방 출신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인, 대만인, 홍콩 출신 선교사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삼자애국운동과 애국가톨릭협회 소속 교회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검열이 없더라도 지도자들은 발언에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 선출 과정은 국가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공산주의 이념적 요구를 수용한다. 삼자애국운동과 애국가톨릭협회는 각각 교회의 '중국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기독교 개종자들

개종자들은 주로 무슬림 또는 불교(티베트 불교) 배경

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개 민족적 긴장이 심한 소수 민족 지역에 거주하며, 정부와 지역 공동체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는 개종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한다. 이는 공통신앙이 민족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당 당국이 '민족 단결법'을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성도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몇몇 성에서는 상업용 건물에서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졌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다시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갖는 형태로 돌아갔다. 이 부류는 통제 강화와 '중국화'정책의 심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공산주의와 포스트 공산주의 억압

기독교인은 국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사회 집단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공산당에게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 규정에 따르면, '사상 강화 교육'을 받은 후에도 종교 신념을 유지하는 당원은 '자발적으로 당을 떠나도록 권유받는다'. 무슬림 및 티베트계 지도자들은 때때로 공산당에 의해 당직자로 편입되어, 해당 지역에서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 독재적 편집증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했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통제 유지를 위해 거의 군사적 수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연구해왔으며, 그중 하나로 기독교인과 같은 사회적 집단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이질적 존재로 간주되며, 주로 서방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공산당은 관료들에게 반기독교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여성들은 특히 가정교회에서 많은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투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과 불교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민족 집단을 배신한 자로 여겨져 남편이 이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현재는 폐지된) 한 자녀 정책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 정책의 여파는 주변국 기독교 공동체의 취약성과 맞물려, 중국 내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걸린 주변국 출신 여성 기독교인들이 신부로 팔려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들:

- 강제 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성적

### 남성

여성들과 비슷한 박해를 받지만, 남성과 소년들은 신체적 학대, 특히 경찰에 의한 구타와 같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히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가톨릭 사제들과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성들은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 구금 중에는 많은 남성들이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된다. 장기 구금된 경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압박 때문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해외 이주를 선택하기도 한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들:

- 납치
- 정부에 의한 투옥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5	78
2024	19	78
2023	16	77
2022	17	76
2021	17	74

WWL 2025에서 0.4점 상승한 것은 기독교인들을 둘러싼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에 소속된 교회이든 아니든 전국적으로 교회에 가해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 공식 지침 시리즈와 함께 발표된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지 않고는 버티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애국주의 교육법"의 시행은 국가 승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된 모든 종교 관련 규정들은 현재 엄격하고 확실히 적용되고 있다. 폭력 관련 점수는 WWL 2024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월 27일:** 헤이룽장성 샤오투에서 비등록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당국에 의해 급습당했으며, 2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 **2024년 4월:** 내몽골 후허하오터 법원은 반옌홍(Ban Yanhong)에게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며)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불법 영업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4년 6월 24일:** 산시성 신저우 출신 가정교회 목사 두밍량(Du Mingliang)은 "불법 국경 출입 조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 **2024년 7월 24일:** 구이저우성 구이양 런아이개혁교회(Guiyang Ren'ai Reformed Church) 장로 장춘레이(Zhang Chunlei)는 "국가 정권 전복 선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 당한 기독교인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납치된 기독교인	강간 및/또는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2025	100*	1000*	100*	100*
2024	100	1000*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으로 인한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해야 한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온라인에서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성경과 코란앱이 애플스토어에서 금지되었고, 종교 오디오북은 오더블에서 금지되었다. 한 국가 전문가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인의 집에 당국이 강제로 들이닥쳤다는 보고도 여러 건 접수되었다. 무슬림이나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는데, 발각될 경우 지역 당국에 의해 협박을 받거나 구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 및 군 소속 인원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도, 대개 그 사실을 숨긴다. 지난 1년 동안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지정 장소 주거 감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구금 및 가택 연금당했다.

## 가족 영역

18세 미만 아동은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당국은 종교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혼란을 느끼거나 때로는 기독교인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부모의 종교를 공개하도록 압박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종한 부모를 둔 기독교 자녀들이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추가 학업 기회를 박탈당하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보고 기간 동안,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인용한 서류가 공개되었는데, 이 서류는 "학교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동체 영역

CCTV, 주민위원회, 보안요원 등에 의한 감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목받는 기독교인들은 특별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 기간 동안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교회의 활발한 지도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에 충분하다. 공산당은 보안요원들이 이상 징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그리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시가 이

뤄진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경찰서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청두의 얼리레인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 잔존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의 고용 차별은 더 흔한 현상으로, 예를 들어 모든 종교의 신도들은 당원 자격이 필요한 정부 직위에서 배제된다. 드물게는 정부가 민간 고용주에게 종교 신자와의 고용 계약 해지를 압박한 사례도 있다. 이슬람이나 불교로부터 개종한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돌아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차별에 직면한다. 이슬람이나 티베트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강제로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개종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족에 따라 조상 숭배 의식에 참여를 강요 받을 수도 있다.

## 국가 영역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종교 활동의 기준을 국가가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영업이나 사기혐의였다. 이러한 혐의 적용은 점차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위에 제시된 사례 목록 참고).

종교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외국과의 연계를 밝혀내기 위한 금융 조사를 실시하거나, 건축물 또는 화재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삼자애 국운동 교회 소속 목회자들은 '핵심 사회주의 가치'와 '애국심'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직위를 잃거나 삼자애국운동에서 탈퇴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2023년 규정의 제39조는 "설교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예: 노인 연금 등)에 의존하는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지역 공산당 간부들로부터 신앙과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또한 공공 부문 진출을 희망하는 기독교 청년들은, 신앙이 알려질 경우 사실상 기회를 잃게 된다.

## 교회 영역

교회 활동은 단순히 정부요원들의 감시만이 아니라, 강단과 회중, 교회 부지 전체를 감시하는 CCTV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승인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설교를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카메라와 첩자에 의한 감시로 인해 교회 내 자기검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종교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21년 5월과 2023년에 각각 발표되었으며, 이 규정은 특히 시진핑 사상을 포함한 이념 및 정치 이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종교 성직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성직자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부 및 교회의 중국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애국 교육의

일환으로, 성직자들은 단순히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넘어 '홍색 순례'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산당 역사상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야 한다. 베이징, 푸젠, 광둥, 랴오닝, 산둥, 상하이 등 여러 도시와 성(省)에서 관련 기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으며, 활동이 발각될 경우 괴롭힘과 방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비등록 교회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해, 다양한 장소를 옮겨가며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과거에는 종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일부 통로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대 목소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중국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에 서명은 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종종 방해받고 중단되고 있다 (ICCPR 제 17조)
- 교회는 법적 지위를 얻는데 방해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들조차 국가의 강한 간섭을 받고 있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옥되고 있다 (ICCPR 제 9조)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이슬람으로 재개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ICCPR 제 7조 및 18조)
-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과 차별을 받고 있다 (CRC 제 2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종교 예배 참석과 종교 교육을 받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CRC 제 14조)

## 중국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이슬람교, 불교 도교, 유대교의 예배 장소들도 폐쇄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무슬림, 불교도 그리고 파룬궁 신자들은 고용, 주거, 사업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티베트불교도들은 특히 새로운 민족 단결법 아래에서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신장지역의 무슬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최대 100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급진 이슬람에 맞서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는 이러한 잔혹 행위를 기록했지만, 중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고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중국 내 수용소 실태는 '차이나 리크스(China Leaks)'와 같은 보고서와 위성 사진을 통해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다.

### 오픈도어의 중국 사역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주로 중국 북서부의 이슬람 소수민족 출신)
-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 한족 출신 기독교인

오픈도어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성경 및 제자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박해 대비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 지역 문화에 맞춘 기독교 문헌을 배포하고 있으며 구금된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